

따뜻함으로 충만한 시의 세계

'96 노벨상 수상작가 비스와바 심보르스카의 생애와 작품

정병권

외국어대 교수·폴란드어

폴란드는 특히 학문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인물들을 많이 배출했다. 노벨상을 두번이나 수상했던 퀴리부인, 피아노의 시인 쇼팽, 우리나라에는 영화를 통해서 더욱 유명하게 되었던 소설 <퀴 바디스>의 작가 시엔키에비츠(H. Sienkiewicz, 1846~1916, 1950년 노벨문학상 수상), 농촌생활의 4계를 서정적으로 묘사한 <농부들>의 작가 레이몬트(W. Reymont, 1924년 노벨문학상 수상), 잃어버린 고향과 가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사는 시인이며 수필가인 체스와프 미오시(1911~, 1980년 노벨문학상 수상)등을 들 수 있다.

평범한 일상에서 새로운 발견

폴란드에서 네번째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비스와바 심보르스카(Wisława Szymborska, 1923~)는 폴란드 중서부 대도시 포즈난 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 브닌에서 태어났다. 8세 때 크라쿠프로 이주한 심보르스카는 이 도시에 있는 야기엘로인스키 대학교에서 폴란드어문학과 사회학을 공부했다. 크라쿠프는 폴란드의 옛 왕도로서 폴란드 국민들에게는 정신적인 중심점이 되고 있다.

특히 폴란드가 중동부 유럽의 패자로서 발틱해에서 흑해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을 때의 수도였기 때문에 문화적 유산을 가장 많이 간직하고 있는 도시이다. 이 도시에 있는 6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야기엘로인스키 대학교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중

하나이다.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와 현재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이 대학 출신이다.

1945년 시인으로 데뷔한 심보르스카는 크라쿠프에 있는 문학잡지 <문학생활>(Zycie Literackie)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시분야를 담당했고 고정 수필난을 가지고 있었다. 심보르스카는 지금까지 10권의 시집과 두권의 수필집을 발표했지만 작품의 양적인 면에서는 역대 어느 노벨문학상 수상자보다도 적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독일의 심보르스카 전문가인 칼 데데치우스의 계산에 의하면 심보르스카가 발표한 작품의 총지면은 800면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시인이며 평론가인 올리안 프즈보시(J. Przybos)는 “심보르스카는 근시안인 것 같다. 작은 물건을 잘 보고 가까이서 더 잘 관찰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심보르스카는 일상의 평범한 사물, 누구나 쉽게 그냥 지나치는 것 등에서 새로운 가치와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시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 주위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알기 전까지는 낯선 것으로 남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심보르스카는 이런 예를 들고 있다. 승용차 한 대가 강가에 있는 잔디밭으로 다가와서 멈춘다. 차에서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내리는 것으로 보아서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서 모처럼 시간을 내서 밖으로 나온 것 같다. 아버지와 아들이 산책을 하는데, 그는 아들에게 들려줄 말이 없다. 그 많은 꽃과 나무, 들맹이들 중에서 아버



올해 노벨상을 수상한 폴란드 시인 심보르스카.

지가 아는 것은 한두가지 뿐이다. 그는 아들에게 오리를 물에 풀어 놓아도 되는지조차 말해줄 수 없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해도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걷는다. 일요일, 신선한 공기,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버지나 아들의 마음은 공허하다.

심보르스카는 관찰의 대상과 주위 환경을 풍자적 시각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찰하고 언어의 이중적 의미를 통해서 표현한다. 심보르스카의 독특한 시세계를 이루는 것은 높은 유머 감각과 아이러니, 그리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을 추출해내는 것이다. 심보르스카는 일상적인 것에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찾고 있다. 작품 저변에 깔려 있는 아이러니는 대상에 집착하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대상을 보는 시각이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대상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완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심보르스카의 작품은 엄숙하고, 때로는 위협을 느낄 정도로 무거운 철학적 문제에 대해서도 유머와 풍자를 통해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은 심각성을 감지하면서도 여유를 가질 수가 있다.

폴란드의 많은 작가들과는 달리 민족의 운명과 현실적인 문제 등에 집착하지 않고 인간 존재의 본질, 인간과 역사, 인간과 환경 등 보편적인 인류공동의 문제에 집요한 관심을 가지고 아무도 모방할 수 없는 독자적이고 독특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는 자기 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수영장과 분수가 있는 빌라에서는 내시가 읽혀지지 않을 것이다. 나의 독자는 시집을 사고 나면 돈이 얼마나 남을까 생각하면서도 책을 사는 사람들이다.”

심보르스카는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과 인간과의 연대감을 작품에서 많이 다루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인간에 대해서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이 담당해야 할 특별한 역할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의 ‘순진한’ 질문들은 오히려 인간 중심주의



‘좋은 사람’을 찾습니다

- 좋은 사람이란 다름이 아니라
- 일을 제대로 할 줄 아는 분을 말합니다.
- 한자로 작성한 이력서(전화번호 명기)와
- 자신의 기량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 자기소개글(원고지 10매 내외)을
-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 주십시오.
-
-
-

- 우리 회사는 흔히 말하는 ‘출판 대행사’로서
- 편집과 교정 일이 주업무가 될 것입니다.
- 문장은 논리 정연해야 하고, 단 한 자의 오자도 없어야 하며,
- 면 구성은 알차야 합니다.
- 그러므로 우리 회사에서는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는
- 최대한 완벽을 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 그리고 이에 더하여
- 편집인으로서의 열정을 갖추어 줄 것을 바랍니다.

- 사업내용
- 집필: 자서전·회고록·개인출판 및 문학·위인전 등.
- 운문: 번역물 및 아동물 등의 Rewriting.
- 교정: 辭(事)典類·漢書·문학 및 학술 서적 등.
- 편집: 백과사전·잡지·사보 등.

- 전산부 요원도 한 분을 더 구하고 있습니다.
- 한글 3.0 편집에 능숙하신 분으로,
- 매킨토시까지 다룰 줄 아신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137-030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26-15(우림BD 5층)/회사명:삼연편집실/대표전화:549-6883/팩스:515-1453/천리안 SAMYEUN
출퇴근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토요일은 격주 휴무)까지이며, 야근이나 특근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네번째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심보르스카는
일상의 평범한 사물들에서
새로운 가치와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시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심보르스카는 이 세상에는 인간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에
게 새롭게 상기시키고 있다. 형식은 단순하
게 보이고, 어휘도 일상 용어가 주류를 이
루고 있지만 그 저변에는 실존주의 철학의
비관적 성격이 짙게 깔려 있다. 다만 명랑
함과 해학이 분위기를 다소 누그러뜨리지만
전체적으로는 폐시미즘이 지배적이다.

친절하고 교양있는 '할머니'

폴란드는 2차대전 때 수백만이 학살당한
현장이다. 전후에는 폴란드는 폴란드인들
의 기대와 요구와는 상관없이 소련에 의해
서 사회주의 국가로 변했다. 사회주의체제
에서 폴란드는 고통과 좌절을 겪으면서 수
차례 정치적 사회적 격동기를 거쳐서 오늘
날 비로소 자유 폴란드로 발전할 수 있었다.

현대사의 온갖 날카로운 톱니에 짓눌린
나라 폴란드의 시인인 심보르스카의 시는
그러나 무정치적(apolitical)이라는 평을 듣
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심보르스카는
"정치적 시는 신문기사 정도밖에 생명을 가
지지 못한다. 나는 현대인이라고 느끼고 있
고, 오늘날 세계에 대해서 쓰고 있다"고 말
하면서 개의하지 않는다.

심보르스카는 대상에서 흔히 내면적 모순
을 발견한다. 우리들의 이해와 인식의 완벽
성은 사실은 우둔함과 거의 차이가 없으며,
실제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인간의

삶과 세계의 질서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인
간은 연습없이 바로 무대에 서게 되는 연극
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얼핏 스치는 현상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하
다 보면 인간 삶의 우연성을 발견하게 되는
데, 사람은 자연질서 속에서 돌출된 부분이
고 자연 속의 수수께끼같은 변종이라는 것
을 느끼게 된다. 심보르스카의 주된 관심은
인간의 존재와 이상하리 만큼 닮았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로 다른 동물의 존재이다.

심보르스카는 노벨상 수상 소감을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답했다. "폴란드에 한 위
대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르샤바에
서 어떤 상을 받았을 때 아무도 그에게 인
터뷰를 청하지 않았습니니다. 물론 사진 한
장도 찍지 않았습니니다. 아무도 그의 시를
외국어로 번역하지도 않았습니니다. 그는 바
로 블레스와프 레스미안(Boleslaw Les-
mian, 1878~1937)이었습니다. 나는 이 순
간 레스미안을 생각하면서 내가 겪은 모든
일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심보르스카는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이
웃 주민들조차도 그가 시인이라는 사실을 아
는 사람이 많지 않을 정도로 조용하게 살고
있다. 다만 친절하고, 교양있고, 인자한 비
시 할머니(Pani Wisi)라고만 알고 있을 뿐
이다. 아파트 경비원은 심보르스카에 대해
서 '그분의 내면은 따뜻함으로 충만되어 있
는 것 같다'는 말을 했다. 여기에서도 심보
르스카의 훌륭한 인격의 일면을 엿볼 수 있
다. ❖

정보환경의 변화와 도서관 문화

제34회 전국도서관대회 개최 ... 부산서 사흘 동안

제34회 전국도서관대회가 10월 31일에서
11월 2일까지 사흘동안 부산대학교 대강당
에서 열렸다. 한국도서관협회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정보환경의 변화와 도서
관 문화'를 주제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
다.

첫날(31일)은 개회식과 이용남 총장(한
성대)의 기조연설, 고영만 교수(성균관대
문헌정보학과)의 <정보매체는 어떻게 변하
고 있는가?> 윤선영씨(계명대 문헌정보학
과 강사)의 <전자매체와 저작권>, 문성빈
교수의 <도서관에 있어서 '인터넷'이란 무
엇인가?> 등의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이 있
었다.

둘째날에는 '도서관 현장(가칭)' 제정에
관한 토의에 이어 최석두 교수(이화여대 문
헌정보학과)의 <전자도서관(Digital Lib-
rary)의 개념과 그 발전추세>, 이경구씨(국
립중앙도서관 열람과장)의 <변화에의 대응
을 위한 현실인식의 중요성>, 최정태 교수
(부산대 문헌정보학)의 <도서관의 정보마
인드와 운영주체>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우리 도서관문화의 현주소>를 진단한 이
용남 총장의 기조연설은 도서관 문화의 현
주소에 대한 두가지 반성에서 출발한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대한 기대가 컸
으나 아직까지는 실망과 안타까움의 연속이
라는 것. 그 원인에 대한 자기반성적 진단
으로 도서관법이라는 '신화'에 매달렸지 않
나 하는 반성을 한다. 법이나 제도는 집행

의지가 있을 때는 유용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장식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 또 하나의 반성은 하드웨어 대한 집착.
도서관 전담부서의 변경이나 전담부서의 설
치가 이뤄지면 순조롭게 도서관 행정이 펼
쳐지리라 기대했지만, 도서관 행정을 구현
하는 소프트웨어 필요성을 절감해야 했다.

이경구 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변화된
도서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현실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통계자료의 분석을 통
해 이제까지 공공도서관 운영이 자습실 위
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지적한 다음, 이를
타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국립중앙도서
관의 변모를 소개했다.

도서관 환경의 개선과 인식의 전환을 위
해서는 첫째, 자료구입을 위한 대폭적인 예
산배정이 이뤄져 보편적이고 친근한 인쇄매
체부터 충실히 갖춰야 하고 둘째, 일반열람
실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자료실을 늘리는
자료이용환경개선을 추진해야 하며 셋째,
법적 기준의 인력만이라도 확보해서 스스로
가 변화하는 정보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길
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번 도서관의회에서는 도서관이 당
면한 문제 해결 없이 첨단정보의 활용으로
의 이행이 순조롭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으
로 논의가 압축됐다. ❖

디자인에도 품위가 있습니다

내용과 형식이 모두 뛰어난 책,
내용은 훌륭하나 형식이 뒤따르지 못한 책,
형식은 그럴듯하나 내용이 보잘것없는 책,
내용과 형식이 모두 형편없는 책.

다름기획은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내용을 적절한 그릇에 담아내는 것,
바로 다름기획의 일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다름기획, 뭔가 다른 기획입니다



표지 및 본문 디자인 / 어학교재 · 학습지 디자인 / 전문교열 · 교정

다름기획

DARUM Publication Design Planning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38번지 성지빌딩 1208호

TEL: (02) 707-0572 FAX: (02) 707-0573

문장에도 숨구멍이 있습니다

숨구멍이 막힌 문장은 생명 없는 책이 됩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원고,
어쩔지 끌려와서 잘 읽히지 않는 번역원고,
몇 군데 숨길만 튀워 주면 좋은 책이 될 원고,

다름기획은 이런 원고들의 숨구멍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프로다운 리라이팅으로 썬표 하나까지,
섬세하게 다듬어 드립니다.